고은 불교대하소설

내려다 보아라 저 아래

106

합두는 내려다 보고 있었고 불이는 올려다 보고 있었다.

욕계 제2천 도리천의 하늘 궁전 마당은 마치 그 눈부신 꽃밭 사이로 난 커다란 길까지도 두둥실 떠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그런 길에는 으레 구름 한 자락이 그 연보라빛으로 물들어 그 구름에서도 은은히 향기가 나고 있었다.

온갖 사바세계의 괴로움과 아픔 슬픔이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천상이었다.

그곳에 사는 천인들은 누구나 한 마디씩 주고 받는 말도 노래이고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지극히 아름다운 연주의 소리가 노을처럼 물들어 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합두와 불이가 주고받는 말도 노래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는 목숨은 어머니의 자궁을 빌릴 까닭도 없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다가 나와 응애응애 하고 첫 울음소리를 낼 까닭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런 울음소리 없이 태어난 하늘의 아기는 도리천의 1세가 사바세계 인간계의 6세이다.

그런 아기는 첫 울음소리 따위도 없이 태어나서인지 그 아기의 말은 어떤 슬픔도 깃들이지 않은 그런 영롱한 노래로 되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문득 거기 앉아있는 것처럼 눈깜짝할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도리천에서의 탄생인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합두와 불이는 벌써 젊은 하늘의 남신 여신은 구름자락을 이끌고 이따금 만나는 것이었다.

이따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남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만남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런 만남은 거의 우연처럼 거기에는 어떤 의도나 작위가 끼어들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이 만나는 곳도 지정된 곳이 아니라 아무런 곳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이 만나는 곳조차도 만나는 때와 똑같이 거의 어떤 의지의 표면적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다.

아무튼 만남이란 어느 세계에서나 행복한 것이었다. 그 행복은 두 하늘사람에게 한동안 궁금한 나머지 묻는 첫 인사도 필요하지 않았다.

"안녕."

"안녕."

따위도 없이 그저 빙그레 웃으면 그 웃음과 함께 입이 열려 말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다.

"오늘은 그대가 위를 보고 내가 아래를 보기로 합시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그대가 저 아래의 세상을 보고 내가 그대가 우러러 보았던 위쪽 세상을 보게 되겠지요."

"아 그것 참 좋은 일이오."

이런 정도의 무척이나 심심한듯한 동화(童話)와 같은 대화 몇마디로도 그들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정녕 그렇겠다. 도리천의 그 승화된 상태의 욕계에서 이미 색계와 무색계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동안 떠돌며 태어났던 윤회의 되풀이와는 다른 그런 세계의 천진난만한 성정(性情)으로 되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세상은 추상화처럼 아름다웠다 합두는 돈황 사막 무욕도를 떠올렸다

위쪽 야마천 쪽을 바라보는 불이와는 달리 합두의 눈은 섬부주의 인간계를 투시하고 있었다. 33천은 무엇인가.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장애물도 되지 못하는 하나의 텅빈 허공계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 허공계야말로 합두의 그 아름다운 눈동자 속의 무서운 시력이 관통함으로써 그녀가 온갖 모험과 정신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었던 인간세상의 여기저기를 냉연히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천상의 한 군데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세상의 지상은 그것대로 아름다움이었다. 아무리 아귀 축생과 함께 이루어진 인간세상이지만, 아니 아귀 축생뿐 아니라 그 자신이 때로는 아수라이고 때로는 지옥을 품고 있었던 인간세상임에 틀림없지만 그곳에 바짝 다가들어 살피는 것과 달리 아스라이 드높은 천상 허공에서 내려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곳의 상세한 현실을 추상화하기 마련이다.

합두는 그녀의 의식 밑바닥에서 무엇인가가 꾸물거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막고굴의 그 어둑어둑한 굴실(窟室)이 떠올랐다. 그 전생에의 확연한 기억이 아니더라도 긴가민가하는 대상인 것과는 달리 바로 그 어둑어둑한 작은 암굴 속의 우렁우렁 울리던 메아리 같은 것이 천상에서의 귀언저리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심코 "돈황!" "돈황 막고굴!"이라는 말이 새어나오면서 그 전생의 도량이 차츰 그 그림자나 그늘 따위로부터 숨겨져 있던 실체가 일어서는 것이었다.

아니 이보다 먼저 끝도 없이 뻗어 나가고 있는 사막이 떠올라 그녀의 귀 언저리에 사막의 거센 바람소리가 스쳐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뒤에야 그녀의 눈에 사바세계 섬부주 인간계의 한 군데인 중국 오지가 솔개의 눈에 지상의 한 병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려다 보이는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합두는 그곳에서 한두번 들은 일이 있는 시 한 편도 떠올랐다. 이른바 서역시편(西域詩篇)이었다.

평생 노래하고 춤추는 곳
더욱 노래를 익힘으로 말미암지 않네
비파의 아름다운 소리 끊어지고
거문고 줄 끊어져 이어지지 않네
(平生歌舞處
無由更習曲
琵琶絶巧聲
琴絃斷不續)

아마도 그 시는 더 이어졌던 모양이나 여기까지만 외울 수 있었다.

합두와 불이는 보라빛 구름위서 부여안았다 "나는 불이님의 세세생생 동행…"

돈황 막고굴은 아닐지라도 그 일대의 어느 불교국가의 왕립사찰에서 노닐던 풍류의 승니(僧尼)를 개탄하는 주제였던 것이다.

"에잇 하잘 것 없는 일이야" 라고 합두는 그 시를 얼른 지워버렸다.

그 뒤에 이어서 귓전을 에워싸는 소리가 있었다. 파도소리였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전의 오랜 세월 그대로 들리던 파도소리였다.

"아아."

그 파도소리는 조선반도 서해안의 연안에 있던 무욕도의 파도소리 그것이었다. 그 파도소리로 합두의 눈에는 하나의 섬이 떠오르고 있었다.

무욕도였다.

무욕도의 선착장 쪽이 훨씬 깊은 것인지 그 일대가 유난히 검푸른 물빛을 띠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한 겨를이었고 그 섬은 육지의 여러 곡선으로부터 어느만치 떨어져 있는 외딴 섬둘레를 하얀 이빨들 같은 파도로 에워싸여 있었던 것이다.

합두가 몸을 움직일줄 모르고 그런 지상을 마치 발 아래를 굽어보는 것처럼 오래동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그녀의 옆에 와 있는 불이가 슬쩍 건드렸다.

"이제 내가 내려다 볼 차례입니다."

"아아."

그때에야 꿈결에서 깨어난듯한 합두가 지상의 먼 곳까지 닿아있던 눈을 돌려 바로 그녀 옆에 있는 불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합두는 그녀 앞에 서있는 하늘의 남신(男神)이 아주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윤회를 거듭해온 동행의 도반임을 놀라면서 깨달았다.

"아아 불이님!"

몇번이나 거듭 다른 삶으로 태어났으나 바로 그 불이가 무욕도 시절부터의 동료였던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나머지 합두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멀고 먼 세상을… 멀고 먼 저 아래의 세상을 내려다 보시더니… 그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눈물 바람을 하시는구료" 라고 불이가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저었다.

"아닙니다. 불이님… 그대와 함께 지내던 전전생(前前生)의 곳을 생각한 나머지…."

불이는 아직 합두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제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겠습니다."

합두가 일어서서 저만치 옮겨갔다. 그녀의 한마디 말이 남겨졌다.

"그대 공부하던 곳을 한번 찾아보시오."

불이는 바야흐로 일고 있는 환구름 한 자락을 걷어낸 다음 그 검은 허공계의 여러 방향으로 눈길을 옮겨가며 내려다 보고 있었다.

도리천의 하늘에서는 그런 검은 허공계의 어디엔가 있을법한 세상이 아무에게나 쉽게 보이지 않았다. 불이의 경우에는 마치 점점 장님이 되어가는 약한 시력으로 보이는 풍경처럼 야릇한 추상일 뿐 인간세상의 어느 곳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그 허공계에 사왕천 일대가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음으로써 도리천은 도리천 밖의 어느 세계도 상상할 수 없었다.

불이가 합두 쪽으로 갔다.

"이제 위쪽을 우러러 보구려" 라는 말에도 합두는 입을 다물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더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불이님이 내 앞에 계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지없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기쁩니다. 합두님."

그들은 보라빛 구름 위에서 몸이 부여안았다. 그것은 남신과 여신 사이의 욕정 따위가 아니었다.

합두가 그녀의 밝은 영식(靈識)을 통해서 알게 된 무욕도 이래의 오랜 동료인 불이에 대한 새삼스러운 감격 때문에 합두의 수행이 이룩한 일치의 행위였던 것이다.

"불이님은 내 세세생생의 반려이고 나는 불이님의 세세생생을 따라다닌 동행이었습니다."

"……."

"이런 일이야 그대도 이미 짐작하셨겠지요?"

불이는 합두의 팔 안에서 풀려난 뒤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다.

합두가 구름덩어리를 한 아름 그런 불이한테 툭 씩 던져주며 이제까지의 진지한 것을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돌렸다.

"이런 하늘나라에서는 실컷 소꿉장난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공부나 하는 것이지요."

불이의 생각은 좀 달랐다.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한번 더 다시 태어나 욕계 제3천 야마천(夜摩天)의 하늘에 올라가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대가 내 동행이라면 거기까지도 함께…."

그림·조향숙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大明堂 急賣

위치 : 충북 단양 적성면 ○○산 최고요지(임야512평)
※톨게이트에서 15분 관광지정지, 버스전입가(왕궁터 형국)
■가격 : 평당 6만원(더는 해줌, 같은 공동묘지가격)
■기타 : 동남향, 남한강, 도담삼봉이 아래 펼쳐져있는 경치 최고地
연락처 :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혁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룡암 : 천불전, 닫집, 신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효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방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봉사
연락처 : (0346)553-6480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척추교정·지압시술 및 개인지도

좌골신경통

TEL : 543-7306, 711-4370
전문시술원 張三洙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중국명문 한의대

침·기공 연수

1. 박사과정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
기 간 : 8박9일
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비만, 좌골신경통,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남경중의학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이내 선착순

2. 국제 침구사 연수반
대 상 : 침구전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
기 간 : 1개월
연수내용
①중의학 기초이론 - 음양오행, 기혈진액, 변증논치등
②침구학 기초이론 - 경락, 유혈등 침구기본조작기능, 임상적다발병 침구치료법등
연 수 후 : 국제침구사 연수 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이내 선착순
출 발 : 1996년 12월 22일
3. 중국남경중의학대학 남경 025-6612904
4. 문의처 : 한국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1080, 511-2026-8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늙지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검버섯·늘어진얼굴
○○○○피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지리산 청학사

산사 수려한 곳에 방학때 조용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 숙식제공, 1인1실, 기름보일러 세탁기 완비 - 월 22만원
연락처 : 0595)83-2933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의령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송기 복전함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충주(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 합장

포교원 운영하실 분

위치 : 동래구 장전1동
평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월세 40만원
연락처 : (02)245-0904

포교당 하실분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